

OBSCENE

Festival

2024

11.15-24

온라인 공개 Online release	1	마텐 스팅베르크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II	Mårten Spångberg Stories That Tell No Nothing II
아케이드서울 Arcade Seoul	2	알레한드라 폴보 수 나다 에스푸마	Alejandra Pombo Su Nada espuma
	3	이기 말름보리 엑시트 피스 #0	Iggy Malmborg Exit Piece #0
	4	이민진 수평선 옆에	Lee Minjin Next to the Horizon
	5	김보용 합창을 위한 모임	Kim Boyong Gathering for a Choir
	6	안나 페어손 발굴 시리즈 I 과 II	Anna Pehrsson Excavation Series I and II
	7	스티나 포쉬 입 속 가득한 혀	Stina Fors A Mouthful of Tongues
	8	서영란 함께 짓기 컨텍스트	Suh Yeongran Co-Weaving Context
	9	서영란 함께 짓기	Suh Yeongran Co-Weaving
리움미술관 Leeum Museum of Art			
아케이드서울 Arcade Seoul	10	아르민 호크미 시라즈	Armin Hokmi Shiraz
리움미술관 Leeum Museum of Art	11	세실리아 뱅골레아 베스티아레	Cecilia Bengolea Bestiare
	12	안젤라 고 토틸	Angela Goh Total
아케이드서울 Arcade Seoul	*	연계 행사 『옵.신 10』 출판 기념회	Related Event Ob.scene 10 Book Launch

아케이드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28길 23
인스타그램 @arcade.seoul

리움미술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www.leeum.org

Arcade Seoul
23, Dorim-ro 128-gil,
Yeongdeungpo-gu, Seoul
Instagram @arcade.seoul

Leeum Museum of Art
60-16, Itaewon-ro 55-gil,
Yongsan-gu, Seoul
www.leeum.org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									
	17:00		16:30							
	19:30	19:30 🗣️								
		17:30	19:30							
			10:00							
			17:30	20:30						
				19:00		20:30 🗣️				
					18:00					
									10:30	
						19:00	20:00 🗣️			
							17:00			
								19:00	19:00	
					20:30					

🌐 접속 정보는 옴/신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고.
ob-scene.com

🗣️ 공연 후 작가와의 대화

🌐 See the Ob/scene
Festival website for access:
ob-scene.com

🗣️ Followed by artist talk

축제 안으로 축제를 들이다

새로운 시대는 모종의 폭발로 시작하기 마련이고, 무언가 끝날 때 폭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고된 시대 일수록 폭발은 일어나기를 고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모이고, 함께 머무르고, 연대의 형태를 실천하는 일, 무언가를 바라보기보다는 함께 있음을 즐기는 일이 된다.

축제의 긴 역사를 돌이켜 보면, 축제가 스펙터클과 동의어가 된 것, 표현과 관객, 생산자와 수용자 간에 명확한 구분이 지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수백 년 동안 축제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함께 있고 함께하는 것이었다. 유명 배우나 팝스타처럼 성공한 인물을 추앙하는 것도 아니었다. 성공해야 하는 것은 축제 그 자체,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만큼은 계급이 사라져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 놓이고, 지위, 가문, 소속은 가면 뒤로 숨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축제의 시간은 무정부적이고 조직화되지 않는 시간이었으며,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가치 체계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음/신은 현대적인 형태의 축제이지만, 올해는 '함께하기'라는 축제의 옛 정신을 살려보고자 한다.

극장이라는 장치는 특정한 시선과 경험의 방식을 제안한다. 우리가 눈으로 공연을 보고 스펙터클을 소비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구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소비하도록 배워 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예술은 지구를 소비하고 이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가르친다. 되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것, 그 귀결을 생각하지 않고 추출하는 것 말이다. 과연 공연예술은 이러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돌봄, 함께하기, 친밀감, 뒤엎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안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까?

Letting Festival into the Festival

A new era should begin with a bang or perhaps the bang is when something comes to an end. In troubled times bangs aren't what we look forward to but what is needed is to come together and stay together, to practice forms of solidarity and enjoy being with rather than look at.

Festival has a long history but it's only recently that it has been synonymous with spectacle and a clear division between expression and audience, producer and receiver. For hundreds of years festivals weren't first and foremost about showing something but about being and doing together. It wasn't about celebrating certain individuals, like famous actors or pop stars. What was supposed to be successful was the festival, being together and equal. During festivals, this was central, everybody was equal, hierarchies were erased, status, family and belonging were hidden behind masks. The time of festivals was a moment of anarchy, a time without organization, when everything was possible and value out of place.

Ob/scene is a festival in the form of a modern-day festival but this year it attempts to cultivate something of the old spirit of coming together.

Theatre proposes certain ways of looking and experiencing. We look at theatre and consume spectacle with our eyes not so unlike how we humans have been taught how to look at, experience and consume the earth. The theatre teaches us that it's okay to consume and take advantage of the earth. To take without considering the consequences, to extract without giving back. Can performing arts question and propose alternative strategies that instead emphasize care, being with, intimacy and entanglement?

This year's Ob/scene Festival has decided on a smaller format, one venue and an informal setting

올해 옴/신 페스티벌은 축제의 사회적이고 참여적인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은 규모, 단일 공연장, 허물없는 형식을 선택했다. 스크린에서 익명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깥세상을 차단하거나, 익명의 관객으로 머무르다 가는 대신, 함께 모이고 서로 나누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올해의 축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며, 공연을 음식, 디제잉, 워크숍, 산책, 출판 등과 함께 버무린다.

올해 옴/신에서 모이게 될 예술가, 사람들, 작품, 모임, 워크숍, 어울림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기여다.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and engaging qualities of the festival. Is it maybe urgent today to come together and share instead of remaining anonymous spectators or closing out the world in favor of screen time and anonymity? Therefore the festival will happen all hours of the day and night, remixing performances with culinary experiences, DJ-sets, shared practices, walks and publications.

The artists, people, works, get-togethers, workshops and hangouts that Ob/scene brings to Seoul this time is our shared contribution to a different world.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II

Stories That Tell No Nothing II

2022년, 스웨덴 안무가 마틴 스팅베르크는 옴/신 페스티벌의 위촉으로 무용수 세 명과 가수 두 명이 참여하는 무용 공연 〈나는 이들 중 하나를 숨긴다〉와 더불어 한 편의 단편 소설을 발표했다. 목표는 춤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통해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 〈빌리 엘리어트〉나 〈토요일 밤의 열기〉 등의 할리우드 영화처럼 춤에 관한 소설이나 무용수가 등장하는 소설이 아니라 안무가의 관점으로 쓰는 소설. 머스 커닝햄이나 저드슨 처치, 90년대의 농당스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안무가가 쓰는 소설. 이야기도, 등장인물도, 〈벚꽃 동산〉 같은 무대도 없고, 서사 전개에도 관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설인 그런 소설. 흥미진진하거나 액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춤을 닮은 소설. 자기 자신을 잊을 수 있는 공간에서 사유나 인상을 통해 읽는 이의 이야기가 생명력을 얻는 소설. 소설은 공연 14일 전부터 하루에 한 편씩 발표되었고, 공연은 일종의 15번째 에피소드가 되었다. 이는 미스터리의 해결이 아니라, 움직임과 시간, 리듬, 그리고 감각들이 얹혀 있는 풍경을 다르게 펼쳐 보이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에 담긴 정치적 의도는 독자에게 동시대 사회에서 밤낮으로 눈앞에 쏟아지는 이야기의 홍수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결국 이야기는 무엇을 경험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을 소비해야 하는지 정해주기 때문이다.

올해는 그 속편인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II〉가 매일 축제를 동행할 것이다. 그 끝에 공연이 뒤따라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책은 부재한 춤 또는 사라진 움직임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대중교통에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애인을 기다리는 동안 읽을 책, 혹은 어머니를 위해 낭독할 책이 될 것이다.

In 2022, the Swedish choreographer Mårten Spångberg presented a short novel as part of the Ob/scene Festival commission, a dance performance for three dancers and two singers titled *I'm Hiding One of These*. The ambition was to write a novel through the specific conditions of dance. Not a novel about dance or inhabited by dancers like Hollywood movies such as *Billy Elliot* or *Saturday Night Fever*, but using the perspective of a choreographer. Let's say a choreographer, who learned from Merce Cunningham, Judson Church, non-dance of the 90s and so on. Dance that has no story, no characters, that happens on stage not in a set like *The Cherry Orchard* and that doesn't concern itself with development but still is a novel. Maybe not so exciting, thrilling or action-packed but more like a dance, a place to forget oneself where thoughts and impressions make the reader's stories come alive.

The novel was presented, one episode each day fourteen days before the performance that so to say became the fifteenth episode, not as a resolution of the mystery but as a different unfolding of a landscape crisscrossed by movement, temporalities, rhythms and touches.

Perhaps, a political intention was to offer the readers a moment without the flood of stories that contemporary society, day and night, rubs in our faces. After all, stories tell us what to experience and think, what to focus on and at the end of the day shop and consume.

This year, Mårten Spångberg has written a sequel *Stories That Tell No Nothing II*, which will accompany the festival daily. There will be no performance in the end but perhaps the book is the missing dance, the movements that disappeared, that can be experienced on your phone while spending time on public transport, while waiting for your girlfriend or read out aloud to your mother.

온라인 공개
11.15 금-11.24 일
ob-scene.com

Online release
11.15 Fri-11.24 Sun
ob-scene.com



Courtesy of the artist

지원

베를린 공연예술기금,
렐만스카 문화기금

특별 지원

필리파 라모스, 포르토
시립갤러리

고마운 사람

라우라 판테, 실비아
보티로리, 킴 벤자민,
알레한드라 폼보 수
번역
김신우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스웨덴 출신 안무가 마텐
스팡베르크는 춤 창작과
더불어 확장된 실천으로서
안무에 관심을 두고 영화,
건축, 책, 사회적 안무 등을
만들어 왔다. 소설뿐 아니라
이론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현재 춤과 애도에
관한 책을 마무리 중이다.
옵/신 페스티벌은 그동안
스팡베르크의 작품 네 편을
위촉하고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024년부터
그는 옵/신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Supported by

Fond Darstellende Künste
Berlin, Längmanska
Kulturfonden

With special support from

Filipa Ramos and Galeria
Municipal do Porto

Thanks to

Laura Pante, Silvia Bottiroli,
Kim Benjamin and
Alejandra Pombo Su

Translated by

Kim Shinu

Mårten Spångberg is
a choreographer from
Sweden living and working
in Berlin. Next to creating
dances he has taken an

interest in choreography as
expanded practice, realizing
for example films, archi-
tecture, books and social
choreographies. He has
published several books,
fiction as well as theory and
is currently finishing a book
about dance and mourning.

Ob/scene has commis-
sioned four of his recent
projects and he has lectured
frequently in the context
of the festival. From 2024
Mårten Spångberg func-
tions as the artistic director
of Ob/scene festival.

나다 에스푸마

Nada espuma



Courtesy of the artist

아케이드서울 앞**11.15 금 17:00/11.17 일 16:30****무료/25분 / 무용**

알레한드라 Pombo 수의 예술 실천은 시각, 시청각, 공연 예술 사이를 넘나든다. 꿈을 담은 환상과 상상을 토대로 하는 그의 작품은 감정, 상상된 형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 동물, 장소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여성성과 동물성, 포스트휴먼, 자연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예측 불가능한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상상된 것들 사이의 관계를 살핀다.

일련의 공연 시리즈에서 Pombo 수는 목소리의 변조, 진동, 강도를 통해 동물적 존재감을 탐구한다. 이 존재감은 피부로부터 분리되어 비육체적이고 열려 있는 그리고 정의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나아가는 몸으로 구현된다. 그녀의 작품은 목소리와 사람, 표현하는 것과 표현되는 것, 자전적 허구와 포스트휴먼/외계인-되기 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해체한다. 존재와 외관을 하나로 보는 관점에 역행하는 역학을 만들어내고 그 자리에 본능적인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벗어날 수 없는 불편한 경험을 발생시킨다.

함께하고 만들

알레한드라 Pombo 수

지원마리아 호세 호베 재단
아트 센터

알레한드라 Pombo 수는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수행적 작업을 기반으로 하며 익숙한 매체에 비관습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재료와 매체를 탐구할 때 '무엇'보다는 '어떻게'의 문제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종종

고의적이면서도 우연적이고, 표현적이면서도 형식적이고, 속도감 있으면서도 반복적인 이중성으로 가득한 작품을 만든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라 카사 엔센다다, CA2M, 폰테베드라 미술관 등에서 독창적인 실천을 선보였다.

In front of Arcade Seoul**11.15 Fri 17:00/11.17 Sun 16:30****Free/ 25 min/dance**

Alejandra Pombo Su's artistic practice moves between the visual, audiovisual and performing arts. Based on dreamlike visions and imaginings, her works represent emotions and imagined figurations as much as concrete people, animals and plac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minine, the animal and the post-human, the natural and the sensory, the unforeseen, the ineffable and the imagined.

In an ongoing series of performances, Pombo Su explores animal presence through modulations, vibrations and intensities of the voice, as a body that detaches itself from its skin and connects to a non-corporeal, open and undefined place. Her work deconstructs established relations between the voice and a person, expressing and being expressed, auto-fiction and becoming post-human or alien, creating a negative dynamics undermining the commensurability between being and appearance in favor of unsettling not seldom visceral experiences impossible to escape.

With and by

Alejandra Pombo Su

Supported byCentro de Arte Fundación
María José Jove

Alejandra Pombo Su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living and working in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Her practice is essentially performative resulting in unconventional approaches to stable media, investigating material and media in respect of how rather than what, which often result in work that's paradoxical to itself, full of

contradictions that appear to be simultaneously deliberate and accidental, expressive and formal, hasty and repetitive. Alejandra Pombo Su's practice is highly unique and has been presented by venues such as Museo Reina Sophia, La Casa Encendida, CA2M and Museo de Pontevedra.

엑시트 피스 #0

Exit Piece #0

스웨덴의 연극 연출가이자 배우인 이기 말름보리는 〈엑시트 피스 #0〉에서 전통적인 연극에 존재하는 '퇴장'에 관심을 둔다. 그는 장난스럽지만 이론적으로 날카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인간이 '끝'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살핀다. 끝이란 결말일까? 탈출일까? 그도 아니라면 도피, 타협, 혹은 탈주일까? 퇴장은 현존과 권력 간의 퇴장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강제로 밀려나는 경험 간의 지키고 싶은 것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간의 망각과 기억 간의 긴장을 수행한다.

〈엑시트 피스 #0〉에서 퇴장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존재 방식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 불가능성 사이에서 진동한다. 하지만 출구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퇴장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 어쩌면 퇴장, 도망이라는 환상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한 우리를 제 자리에 묶어두는 약속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퇴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깥이 손에 잡힐 듯 모습을 드러내는 문턱이 될 수 있을까?

이기 말름보리는 한국 관객 및 옴/신 페스티벌을 위해 새로이 사전 연구격 공연을 만들었다.

In *Exit Piece #0*, the Swedish theatre maker and actor Iggy Malmberg, through the theatrical exit or sortie, investigates with a high degree of playfulness and theoretical sharpness how we humans relate to endings. Is it a conclusion or an escape, a form of settlement or a flight? An exit performs tension between presence and power, between what is considered worth keeping and what's not wanted, between forgetting and recollection. The very word includes both the event of leaving as a form of resistance, but also that of being pushed away by an external force.

In *Exit Piece #0*, the sortie reverberates into the necessity and impossibility to escape from oneself, leaving forms of existence as a whole. The event of leaving is also a marking of the threshold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But what if there is no outside, nowhere to flee to? Perhaps, the fantasy of escaping is nothing more than a promise that is keeping us in place.

For the audience in Seoul, Iggy Malmberg has developed a pre-study of the project, specially for Ob/scene festival.

함께하고 만들

이기 말름보리

드라마터그

요한 존슨

해석

조은원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국제예술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연극 연출가이자 배우인 이기 말름보리는 단순한 요소가 철학적 추동을 얻고 뒤틀린 유머가 연극 매체에 관한 집요한 연구로 이어지는 정교하고도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말름보리는 2014년 〈boner〉를 시작으로 내밀한 형식을 지닌 작품들을

발전시켜 왔다. 이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연극, 표현, 세계 만들기 에 관한 독특한 비전으로 한데 엮인다. 현대 연극의 독보적인 존재인 그는 마술과 리얼리즘이 무대에 공존하는 연극을 선도하며 연극에 대한 열정을 고집하면서 동시에 연극이 지닌 특권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말름보리는 자신의 작품 제작 외에도 영화와 인기 TV 시리즈 다수에 배우로 출연했다. 2023년부터는 예테보리 시립극장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아케이드서울

11.15 금 19:30 / 11.16 토 19:30 공연 후 작가와의 대화
30,000원 / 45분 / 연극 / 한국어 · 영어
(별도 자막 없이 진행됩니다)

Arcade Seoul

11.15 Fri 19:30 / 11.16 Sat 19:30 followed by artist talk
30,000 won / 45 min / theater / Korean and English
(no subtitles)



© Karim Iliya

With and by
Iggy Malmberg
Dramaturge
Johan Jönson
Interpreter
Jo Eunwon

This program is presented
with the support of 2024
ARKO International Arts
Network.

Iggy Malmberg is a Swedish theatre maker and actor known for his intricate and highly reflective performances where the seemingly elementary gains philosophical traction and twisted humor meets obsessive research into the medium of theatre.

With *boner* from 2014 Malmberg discovered an intimate format that he has developed in a series of productions that although very different are held together through a particular vision concerning theatre, expression and world-making.

Malmberg is a unicum in contemporary theatre, a visionary who makes magic and realism share the stage, maintaining a passion for theatre and at the same time undermining its prominence.

In addition to his own productions Iggy Malmberg is a sought-after actor for TV and film and has starred in a number of popular TV-series and features. In the season 23/24, he premiered his most recent solo work, *SATAN*, as well as a series of three productions entitled *Försök* (Swedish for *attempts* or *essays*) commissioned by

Gothenburg city theatre. This season *SATAN* continues to tour and for the first time, he will also make a piece of theatre for children entitled *Mot slutet* (Towards the end) commissioned by the renowned Backa Teater.

수평선 옆에

Next to the Horizon

우리는 공연을 보러 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어쩌면 해변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 따뜻한 햇살, 선선한 바람, 너무 외롭지 않을 만큼 적당한 수의 사람들. 그곳에 가면 모두가 수평선, 해변의 끝을 향해 한 방향을 바라본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 말고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말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잊어버린 채,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떠다닌다. 언제 다시 물에 들어갈까?

〈수평선 옆에〉는 무용수의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인 탐구에서 비롯된 춤이다. 무용수는 주체이자 사람이면서 보여지는 대상이다. 관객의 시선에 의해 소비되며 전문가의 평가와 칭찬을 받는다. 미학적으로 보면 한 개인인 동시에 예술 작품의 일부로 존재한다. 작품은 '춤추는 몸이 표현의 의무, 춤 이상의 다른 무언가를 재현해야 할 의무, 심지어는 무용수가 자신의 존재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할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이민진은 춤의 물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 왔다. 표현, 공연, 활동으로서의 춤, 또한 그 자체로서의 춤에 관심을 두며, 의사결정과 협업에서 춤, 즉흥, 안무 사이의 역학을 탐구한다.

When we go to see a performance it's hard to deny the fact that we expect something good to happen. Similar to when we go to the beach. Warm sun, a nice breeze, and just enough people so that you don't feel alone. There everyone faces the same direction, the horizon, the end of the beach. Watching the scene in which most of the time nothing particular is happening except the waves rolling in. You forget who you are, maybe where you're from, what you do, a single question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when should I go for a dip again?

Next to the Horizon is a dance that started from a personal research around the identity of a dancer. Simultaneously being a subject, a person and an object to be seen, consumed by the spectator's gaze, admired and judged as a professional as well as aesthetically being both an individual and a part of an artwork. Questions arise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liberating the dancing body from the obligation to express, the dancer from representing something else than the dance or even worse, prove his, her or their existence and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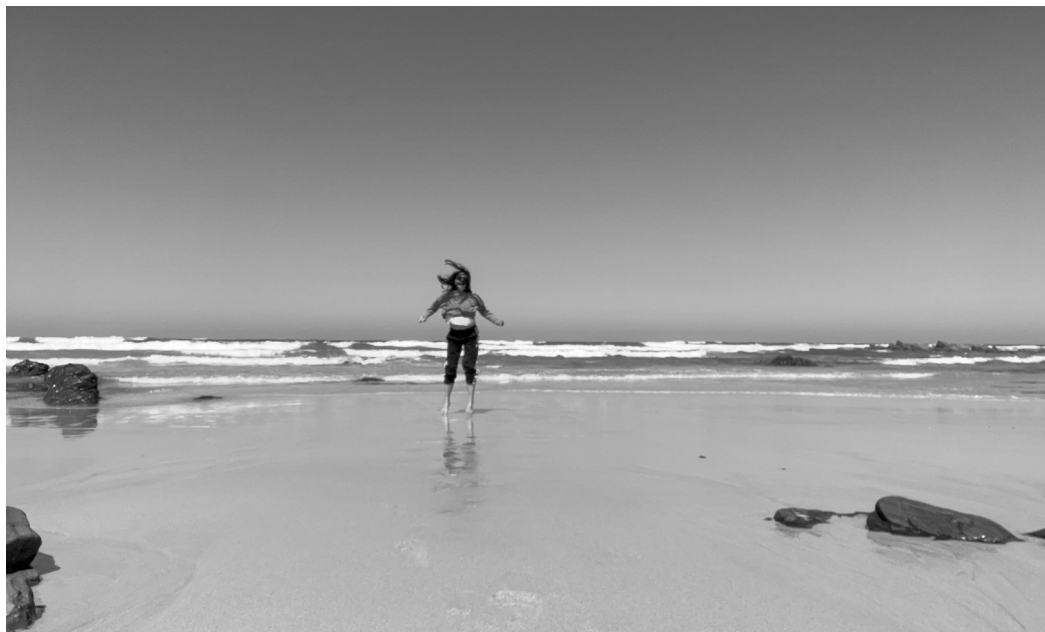
The Korean dancer and choreographer Lee Minjin is in her work through different perspectives approaching the materiality of dance; dance as expression, show, activity and something in itself, and the dynamics between dance, improvisation and choreography in relationship to decision making and collaboration.

관람 연령 제한 및 안내사항

- 본 공연은 19세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 공연 중 영상과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Viewing age restrictions and guidelines

- The show is for ages 19 and up.
- Video and photography are prohibited during the show.

아케이드서울**11.16 토 17:30 / 11.17 일 19:30****30,000원 / 40분 / 무용****Arcade Seoul****11.16 Sat 17:30 / 11.17 Sun 19:30****30,000 won / 40 min / dance**

Courtesy of the artist

안무

이민진

드라마투르기

윤상은

음악

양선용

조명

팔호

공동제작

옵/신 페스티벌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창작의과정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민진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무용수이자

퍼포머, 안무가이다. 작가는

국민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한 후 리케이 댄스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에는 무용과 미술의

현장을 넘나들며 퍼포머로

활동했으며, 권령은, 마텐

스팽베르크 등의 안무가와

협업했다. 최근에는 포름

단사에서 미겔 페레이라와

누누 루카스가 큐레이팅한

6개월간의 PACAP7

프로그램을 마쳤다.

Choreography

Lee Minjin

Dramaturgy

Yun Sangeun

Music

Yang Sunyoung

Light design

Galho

Co-produced by

Ob/scene Festival

This program was produced
with the support of 2024

ARKO Creative Process.

Lee Minjin is a dancer, performer, and choreographer based in Seoul. After finishing her studies in dance at Kookmin University, she started her practice as a dancer by performing with Lee K. Dance company. She also collaborated in depth with choreographers such as Kwon Lyon-eun and Mårten Spångberg. Recently, she finished the 6-month programme PACAP7, directed by Miguel Pereira and Nuno Lucas, at Forum Dança.

합창을 위한 모임

Gathering for a Choir



Courtesy of the artist

아케이드서울**11.17 일 10:00****무료/2시간/워크숍**

사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날 잠시나마 사색할 틈 없이 효율적인 사고의 지배 아래에서, 예술은 다채로운 리듬, 감각과 정동에 더 가까워질 열린 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세상에 다가갈 수 있을까?

김보용의 예술적 실천은 명상, 영성, 연극, 목소리 기반의 공유하기 사이에서 부드럽게 진동한다. 이는 완전한 재현도, 단순한 사회적 모임도 아니다. 가장 작은 몸짓으로 사소하고 잊힌, 혹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본 워크숍에서는 호흡과 목소리, 그리고 함께 노래하기에 초점을 맞춘다. 치유와 도전, 현재와 고대, 개인과 집단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목소리는 풍경이 되고, 몸은 오를 산이 되며, 시간을 초월하며 함께한다.

함께하고 만들**김보용**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국제예술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보용은 현존, 드러난 방식으로, 방식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내면을 무대로 다루고 이것을 공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예술이 종종 선형적인 관계를 맺는 가치 체계와 자본주의는

그의 작품에서 영성과 무(無)의 공간을 거쳐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는 이를 통해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생태계를 탐구한다. 보지 않고 보기, 이미지 없이 경험하기, 재현 없이 존재하기 등 어두운 몸 안에서 초개인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함께 연결되는 공성의 존재를 탐구한다.

Arcade Seoul**11.17 Sun 10:00****Free/2 hours/workshop**

Where does a thought begin? In a world dominated by communication, where thought processes are obliged to be efficient and there's no time for idle contemplation, can art create situations, time slots, temporary and volatile spaces that care for different rhythms, other modes of sharing, altered forms of becoming available for impressions, sensations and affects, more intimate to life's being with the world?

Kim Boyong's artistic practice exists in the gently vibrant spaces between image-making and meditation, story-telling and spirituality, theatre and voice-based sharing, not fully representation but not neither just a social moment. Kim masterly composes with the smallest gestures landscapes that make stories come to life; forgotten, to insignificant or of utmost importance.

In this workshop, the focus is on breathing, the voice, and singing together. Kim will guide the group through experiences simultaneously healing and challenging, present and ancient, personal and collective, through which the voice becomes landscape, bodies mountains to ascend and being together a timeless intimacy.

With and by**Kim Bo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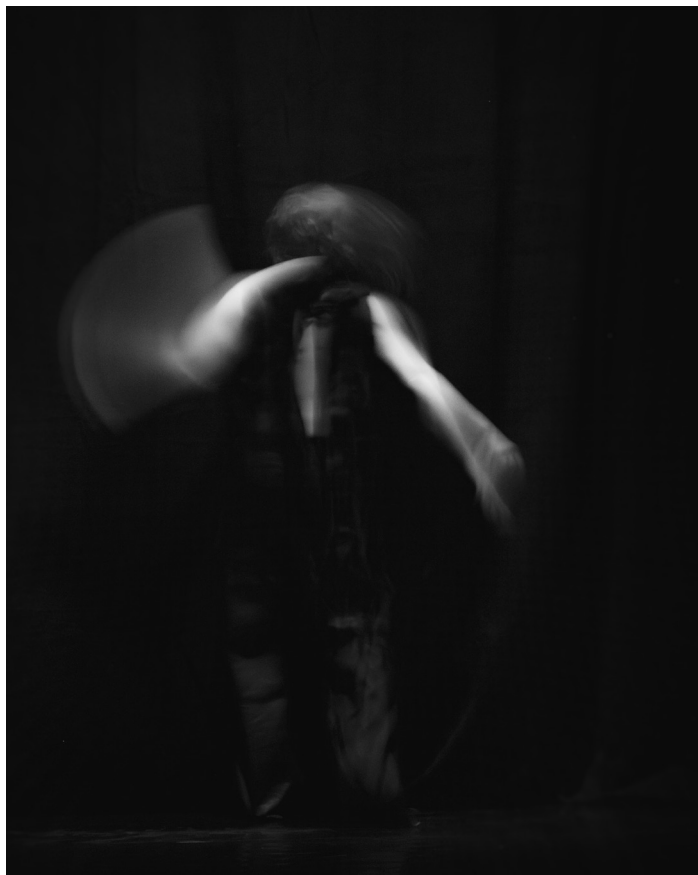
This program is presented with the support of 2024 ARKO International Arts Network.

Kim Boyong is an artist based in Seoul. Through his practice he takes an interest in presence, the hidden, the unspeakable, the inner stage and the possibility of sharing the ineffable. Art's often linear relation to value and capitalism is in Kim's work complexified through the engagement

with spirituality and nothingness, exploring alternative ecologies of mental, social and environmental relations. Seeing without seeing, experiencing without images, being without representation is in Kim's work opening up for questions around transindividual life, simultaneously a dark body and a porous being connected and together.

발굴 시리즈 I 과 II

Excavation Series I and II



© Thomas Zamolo

아케이드서울

11.17 일 17:30 / 11.18 월 20:30

30,000원 / 1시간 / 무용

〈발굴 시리즈 I과 II〉는 지질학적 (변화)과정, 돌의 물성과 돌이 지닌 수직적 시간의 관점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몸에서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을 찾는다. 안나 페어손은 움직임의 전제 조건에 집중하며 움직임의 근원과 생성 지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몸과 공간들로 전파되는지 드러내기 위해 여러 막과 주름을 한 겹씩 벗겨 낸다.

〈발굴 시리즈 I과 II〉는 구석에 놓인 뜨거운 액체와 암석, 하늘을 가로지르는 혜성의 꼬리, 그리고 모공에 스며드는 얇은 층의 수증기 등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질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빛은 어둠으로 희미해지고, 몸은 소리를 공명하고, 갈아 내는 것은 스며드는 것이 되어 존재라 불리는 그 무언가의 소음이 된다.

Arcade Seoul

11.17 Sun 17:30 / 11.18 Mon 20:30

30,000 won / 1 hour / dance

Through an investigation of geological (transformative) processes, the materiality of stone and its vertiginous perspective of time, *Excavation Series I and II* approaches the human body's ability to create change. Focusing on the prerequisites of movement, Anna Pehrsson peels back layers and folds to reveal where it origins, points of generation and how they are propagated in bodies and space.

Excavation Series I and II is organized as a multidirectional mass—at once a hot liquid and rock lurking around the corner—a comet's tail blasting through the skies—and a thin layer of evaporated water reaching the pores. Light thins out to darkness, body resonates sound, and grinding becomes seeping, a noise of that which is called existence.

안무와 춤

안나 페어손

조명

토마스 자몰로

음악

시다 샤하비, 함퍼스 노렌

의상

살로메 카펠린

제작

벨드 2024

스웨덴 출신의 무용수,

안무가, 예술가인 안나

페어손은 춤, 안무, 시각

예술의 교차점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지질학적 관점으로

움직임을 탐구하고 있으며

신체, 물체, 사물이 한데 모여

장소를 형성하는 환경을

표현하고자 한다.

Choreography and dance

Anna Pehrsson

Light design

Thomas Zamolo

Music

Shida Shahabi and

Hampus Norén

Costume

Salome Kappelin

Produced by

Weld 2024

Anna Pehrsson, Sweden, is a dancer, choreographer and artist active in the intersection of dance, choreography and visual arts. She currently explores movement from a geological perspective, seeking to articulate environments where bodies, objects and things coincide into place.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국제예술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This program is presented with the support of 2024 ARKO International Arts Network.

입 속 가득한 혀

A Mouthful of Tongues



아케이드서울

11.18 월 19:00/11.20 수 20:30 공연 후 작가와의 대화
30,000원/40분/퍼포먼스/영어
(별도 자막 없이 진행됩니다)

〈입 속 가득한 혀〉에서 우리는 카우보이 부츠와 정장 차림의 안내자를 만나게 된다. 그의 목표는 관객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는 것이다. 열세 개의 혀가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고,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비명이 공간을 채운다. 그의 몸은 차분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먼 곳에서 혹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린다. 이 복화술 혹은 ‘목소리 던지기’는 여러 개의 혀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 내고, 그의 주머니에 숨겨진 쪽지들은 다음 길을 안내한다. 유머와 어둠 사이를 오가며 이 작품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트릭을 선보인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는 스웨덴 출신 퍼포머이자 안무가 스티나 포쉬는 이 독창적인 솔로 작품을 통해 목소리가 가진 힘과 해방적 역량을 다루는 작가로 주목받았다.

함께하고 만들

스티나 포쉬

공동제작

스티나 포쉬, 브루트 빈

지원

빈 문화부, 허기 베어스 아트 스페이스, 로 매터스, 임_플리거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24 국제예술 네트워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부조리하고 기묘한 것을 좋아하는 스티나 포쉬는 독특하고 일생에 단 하나뿐인 공연을 만들어 낸다. 독학으로 드럼을 배운 드러머이자 충격적인 보컬리스트인 포쉬는 1인 여성 펑크 밴드인

스티나 포스(Stina Force)로 투어를 다닌다. 이 밴드의 공연은 즉흥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브로 경험해야 한다. 그 밖에도 포쉬는 성대 손상 없이 데스크 그들과 같은 극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테크닉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SNDO에서 안무를 공부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 중이다.

Arcade Seoul

11.18 Mon 19:00/11.20 Wed 20:30 followed by artist talk
30,000 won/40 min/performance/English
(no subtitles)

In *A Mouthful of Tongues*, we encounter a hostess, in cowboy boots and a suit. Her aim is to give the audience a pleasant time. Thirteen tongues spill from her mouth, guttural screams fill the air. While her body is composed, the voice seems to come from a distance or another source. This ventriloquist act, “throwing of the voice,” welcomes the many-tongued human. Hidden in her pockets, notes suggest where to go next. Oscillating between humor and darkness, this performance plays tricks that appear to defy natural laws.

The Swedish performer and choreographer Stina Fors, active in Vienna, has through her extraordinary solo become a sought-after artist examining the power and emancipatory capacity of the voice.

With and by

Stina Fors

Co-produced by

Stina Fors and brut Wien

With the support of

the City of Vienna's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Huggy Bears art space, Raw Matters, and Im_Flieger

This program is presented with the support of 2024 ARKO International Arts Network.

With a certain taste for the absurd and strange, Stina Fors crafts unique, once-in-a-lifetime performances. As a self-taught drummer and shocking vocalist, Fors tours with her one-woman punk-band, Stina Force, a band that must be

experienced live—characterized by spontaneity: no two performances are alike. Additionally, she imparts her knowledge, and teaching techniques to produce extreme voices like death growls without vocal damage.

Stina Fors studied choreography at the SNDO school for new dance development in Amsterdam, currently residing in Vienna, Austria.

함께 짓기 컨텍스트

Co-Weaving Context

지배적인 서구 관점에서 지식은 분리와 연역적 추론, 세분화를 통해 생산된다. 단순화되고, 여러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는 것들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눈 앞에 단 하나의 답만 남을 때까지 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지구 단위의 더 큰 그림과 서로 연결된 개체들,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단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연결된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지식 수집과 생산에 대한 연구와 실험, 실천이 필요하다. 뒤엎힘, 회복, 함께하기, 공동 거주, 상품화할 수 없는 공유의 방식을 고민해야만 한다.

이 워크숍은 참여자를 초대해 다양한 관점과 실천으로 지식 형성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참여자는 듣기, 스토리텔링, 함께 읽고 쓰기 등을 동반한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재생산 및 가사 노동, 돌봄 실천과 마더링(mothering)과 관련하여 주체를 생성하는 과정에 동참한다. 관습을 탈학습(unlearn)하고, 대안적인 형태의 모임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의 방법을 연습하는데 열려있으며, 정신적, 관계적 특성의 생태계를 고민해 보고자 하는 모든 관객을 환영하는 워크숍이다.

Knowledge regarded from the dominant Western horizon is based on separation, deduction and atomisation. Something that lacks complexity and is void of relations is easy to understand. It's knowledge as a form of zooming in until there's only one answer, that however tends to forget that all living beings are interdependent to each other and that relations often are more important than the (individual) entities connected.

In order to heal the wounds from anthropogenic trauma and regenerate, it's crucial to re-search, probe and practice other forms of knowledge gathering and production, think through forms of entanglement, resilience, togetherness, co-habitation and forms of sharing that aren't possible to corporatize.

This workshop guides the participants through practices that address knowledge formation through different perspectives. Listening, story-telling, collective reading and writing methods next to physical practices invite the group in the process of creating self-organized knowledge and conception in relation to rethinking reproductive labor, care practice and mothering. The workshop welcomes individuals with an interest in unlearning conventions and are open to practice alternative ways of gathering, spending time together and engaging with different ecologies of mental and relations qualities.

아케이드서울

11.19 화 18:00

무료/2시간/워크숍

Arcade Seoul

11.19 Tue 18:00

Free/2 hours/workshop



Courtesy of the artist

콘셉트

서영란

협력자

위성희, 정언진, 정이수

공동제작

움/신 페스티벌,

리움 아이디어 뮤지엄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24 국제예술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코펜하겐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안무가이자 실천-
기반의 연구자인 서영란은
인류학, 샤머니즘, 전통
무용을 기반으로 다원적인
무용 공연을 만든다. 기후
액티비즘 퍼포먼스 그룹인
비커밍 스피시스(Becoming
Species)의 일원으로,
복수종, 전통 생태 지식,
집단적 이야기 짓기에 관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Concept

Suh Yeongran

CollaboratorsWie Sunghee, Jung Eonjin,
Jung Leesu**Co-produced by**Ob/scene Festival,
Idea Museum (Leeum)

This program is presented
with the support of 2024
ARKO International Arts
Network.

Suh Yeongran is a choreog-
rapher and practice-based
researcher active in
Copenhagen and Seoul.
She creates multidisci-
plinary dance performances
based on her background in
anthropology, shamanism
and traditional dance. She
is a member of Becoming
Species, a climate activism
performance group, creates
works on multispecies,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nd collective
storytelling.

함께 짓기

Co-Weaving

〈함께 짓기〉는 오늘날 재생산 노동과 돌봄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 현실과 환경, 꿈과 유토피아를 고민하는 신체적이고 시적인 연습의 풍경이다. 이 연습은 참여자 각 개인에게서 비롯된 이미지를 함께 엮으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상상하고 실험한다. 이 연습에 수반된 여러 단계들을 소개받으며 워크숍 참가자들은 다양한 안무적 방법론과 놀이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는 명상, 따라하기, 개인의 이미지에서 뻗어나온 단어와 움직임을 변형하기가 포함된다.

노동, 기술, 세대 간 공유, 성별, 계급 등 공존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재생산 노동을 새롭게 상상하는 일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며, 정치적으로 능동적이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봄 실천자로서, 동지로서, 걱정, 불안, 욕망, 친밀감,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정치적 변화를 품을 수 있을까? 재생산 노동을 새롭게 상상하는 일은 착취적 산업주의와 지구 파괴를 넘어설 수 있는 정신적, 관계적, 환경적 대안 생태학을 실천할 수 있는 비옥한 토대를 마련한다.

본 워크숍은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의 재분배, 미래적 사색, 말하기와 움직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Co-Weaving is a corporeal and poetic landscape of practices contemplating present, individual and collective, realities, fantasies, dreams and utopias of reproductive labor and care. It weaves images emanating from each individual into shared fabrics in order to experiment with and create visions for our desirable futures together. Introducing the practice's different procedures, participants in the workshop will experience several choreographic methods and games: meditation, imitating, and transforming words and movements to branch out from individual images.

It's crucial to reimagine reproductive labor considering fundamental changes in regard to labor, technology, intergenerational sharing, gender, class and many other aspects of living together. How can we create safe spaces that are simultaneously creative, adventurous and politically active? How do we share worries and anxieties, desire and intimacy, visions and harbor political change as caregivers and fellow human beings? Reimagining reproductive labor is also a fertile ground to practice alternative forms of ecology; mental, relational and environmental, beyond extractivist industrialism and the destruction of the earth.

We welcome participation interested in care redistribution, future speculation, and speaking and moving, regardless of experience.

리움미술관

11.23 토 10:30

무료/2시간/워크숍

Leeum Museum of Art

11.23 Sat 10:30

Free/2 hours/workshop



Courtesy of the artist

콘셉트

서영란

협력자

위성희, 정언진, 정이수

공동제작

움/신 페스티벌,

리움 아이디어 뮤지엄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24 국제예술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코펜하겐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안무가이자 실천-
기반의 연구자인 서영란은
인류학, 샤머니즘, 전통
무용을 기반으로 다원적인
무용 공연을 만든다. 기후
액티비즘 퍼포먼스 그룹인
비커밍 스피시스(Becoming
Species)의 일원으로,
복수종, 전통 생태 지식,
집단적 이야기 짓기에 관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Concept

Suh Yeongran

CollaboratorsWie Sunghee, Jung Eonjin,
Jung Leesu**Co-produced by**Ob/scene Festival,
Idea Museum (Leeum)

This program is presented
with the support of 2024
ARKO International Arts
Network.

Suh Yeongran is a choreog-
rapher and practice-based
researcher active in
Copenhagen and Seoul.
She creates multidisci-
plinary dance performances
based on her background in
anthropology, shamanism
and traditional dance. She
is a member of Becoming
Species, a climate activism
performance group, creates
works on multispecies,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nd collective
storytelling.

시라즈

Shiraz



아케이드서울

11.20 수 19:00/11.21 목 20:00 공연 후 작가와의 대화
30,000원/45분/무용

6인의 무용수가 함께하는 공연 〈시라즈〉의 솔로 버전에서 아르민 호크미는 무용수로부터 관객 개인에게 전이되는 감정의 역학을 탐구한다. 춤은 기억, 상실, 소속감 등의 감정을 보여주거나,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아르민 호크미는 춤의 파편에서 출발해 춤추는 몸들이 떠오르고, 한데 뭉쳐지고, 해체되어, 복잡한 구성 형태들을 이루게 되는 거대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생동감 넘치는 공연 〈시라즈〉에서 관객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 집의 내밀함, 공적 삶, 그리고 춤이 만들어내는 잠깐의 휴식 공간들 사이로 여정을 떠나게 된다.

Arcade Seoul

11.20 Wed 19:00/11.21 Thu 20:00 followed by artist talk
30,000 won/45 min/dance

A solo rendition of the ground-breaking performance *Shiraz* for six dancers, Armin Hokmi explores the dynamics of emotional transfer from dancer to the individual spectator. Can dance convey emotions, perhaps of memory, loss or belonging without showing it, explaining or justifying it?

Starting with fragments of domestic dances Armin Hokmi has developed a vast landscape where dancing bodies float, merge, disintegrate and come together into complex compositional formations. *Shiraz* is a vibrant dance that brings the audience on a journey between their personal memories, the intimacy of the home, public life and a dance that's there holding space for a moment's rest.

안무와 춤

아르민 호크미

음악

EHSXN, 레자 R

의상

모리아 아스케나IZER

대화

에미 베나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국제예술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아르민 호크미는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이란 출신의

안무가다. 노르웨이에서

연기를 공부한 후 베를린에서

안무 석사 과정을 마쳤다.

첫 대규모 작품 〈시라즈〉는

2024년 봄에 초연되었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호크미의

작품에서 춤은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보여 주지

않으면서도 시급한 정치적

현실을 포착하며 이에 시적

미학을 중첩해 내면세계와

섬세한 감각 풍경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낸다.

Choreography and dance

Armin Hokmi

Music

EHSXN, Reza R

Costume

Moriah Askenaizer

In conversation with

Emmi Venna

This program is presented

with the support of 2024

ARKO International Arts

Network.

Armin Hokmi is an Iranian choreographer active in Berlin. After studying acting in Norway he finished his education with a master's in choreography in Berlin. His first large-scale production *Shiraz* premiered in the spring 2024 and has since gained a lot of positive responses not least because of how the dance without illustrating or showing captures urgent political realities superimposed with a poetics that open doors to inner worlds and delicate sensual landscapes.

베스티아레

Bestiare



© Hervé Veronese

함께하고 만들

세실리아 벵골레아

영상

세실리아 벵골레아,

안드레안-쉬프첸코,

엔젤스 바르셀로나

공동제작

움/신 페스티벌,

리움 아이디어 뮤지엄

파리에서 활동하는

아르헨티나의 예술가,

무용수, 안무가인 세실리아

벵골레아는 공연, 영상, 조각

작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몸을 움직이는 조각으로

만든다. 벵골레아에게

움직임, 춤, 퍼포먼스는

급진적인 공감과 정서적

교환을 위한 매개체다. 작가는

춤을 협력적이고 해방적인

실천으로 여긴다. 그에게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창조적인

행위이자,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몸에

남은 기억으로부터 폭력과

트라우마를 정화하는

수단이다.

지난 10년간 벵골레아는

자메이카에서 현지의 댄스를

썬과 협력했다. 사회적

스트리트 댄스와 대중문화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적,

집단적 몸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한다. 벵골레아는 자신의

영상 및 조각 작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

풍경, 야생의 생물과

동기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조화로운 소통의

고속도로'라고 이름 지은

실천을 제안한다.

리움미술관

11.21 목 17:00

무료/50분/무용

Leeum Museum of Art

11.21 Thu 17:00

Free/50 min/dance

세실리아 벵골레아는 〈베스티아레〉에서 하이브리드 종의 얽힘을 상상하고 인간의 몸을 자율적 개체로 보는 관점이 환상임을 드러낸다. 디지털 이미지 제작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몸을 동물, 식물, 색, 추상 등 유기적이고 인공적인 형태로 변모시킨다. 이러한 변형들은 인간이라는 정의를 해체하고, 경험과 재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상상 동물 이야기』와 스피노자의 『기쁨의 윤리학』, 그리고 이자벨 스텔어르스에게 영감을 받은 〈베스티아레〉는 착취적 산업주의나 기술 낙관주의, 그리고 인류가 지구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넘어서 우리가 대안적 형태의 생태계에 참여해야 할 시급성을 강력하고 시적인 방식으로 예언한다.

〈베스티아레〉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작품으로, 서울에서는 타자-되기의 대안적 방법을 다루는 특별한 버전을 선보인다.

In *Bestiary*, Cecilia Bengolea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envisioning hybrid species entanglements and the illusory autonomy of the human body. Morphing her own body with digital technologies of image production she sets in motion forms of becoming animal, vegetal, color, abstraction, organic and artificial in ways that deconstructs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where the limits between experience and representation collapse.

The piece exists both as an activated installation and an autonomous video, taking inspiration from Jorge Luis Borges's *Book of Imaginary Beings* as well as Spinoza's *Philosophy of Joy* and Isabelle Stengers. *Bestiary* is a powerful and poetic prophecy around the urgency to engage with alternative forms of ecology beyond extractivist industrialism, techno positivism and the conviction that humanity can save the planet.

As an ongoing work that's constantly evolving, a unique rendition will be shown in Seoul creating alternative ways of becoming other.

With and by

Cecilia Bengolea

Video courtesy of

the artist, Andrehn-Schiptjenko and àngels barcelona

Co-produced by

Ob/scene Festival, Idea Museum (Leeum)

Cecilia Bengolea is an Argentinian artist, dancer and choreographer active in Paris. She works with performance, video, and sculpture, using her own and other people's bodies as animated sculptures. For Bengolea, movement, dance,

and performance stand as mediums for radical empathy and emotional exchange. Making dance a collaborative, liberating practice, the artist considers moving the body to be an inventive act and a means of exorcizing violence and trauma from the body's memory, in both personal and collective dimensions.

For the past ten years, Bengolea has extensively worked in Jamaica, collaborating with the local dancehall scene. She not only explores the role of social street dance and

popular culture, but also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bodies with nature. Bengolea seeks to create what she calls "harmonic communication highways" in order to synchronize the self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landscape, and wildlife that play leading roles in her videos and sculptures.

토털

Total

〈토털〉은 일인칭으로 말하기보다는 삼인칭으로 춤 추기에 더 긴밀하게 연결된 솔로 작품이다.

한편에서는 몸짓이 몸을 타고 흐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몸이 몸짓에 따라 흐른다. 작품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먼지를 일으키고 연막을 만든다. 춤이 몸 에 가까워질수록 몸은 시야에서 멀어진다.

한 편에서는 몸이 당신에게 인사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당신이 몸을 돌아본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몸이 다른 한편이 된다.

호주 출신 안무가 안젤라 고의 새로운 솔로 작품은 '너무도 당연한 것'과 '진짜로 이상한 것'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작품은 불쾌한 골짜기에서 솟아오르고, 패턴 인식을 건드리며, 몸의 불편한 심연과 외연의 끈적한 유동성으로 잠수하고, 풀리지 않는 황혼의 그물망 사이로 사라진다. 이곳에서 작은 디테일들은 형태를 바꾸고, 괴물 같은 존재는 친밀하게 다가오며, 거대한 것은 시선에 사로잡힌다. 안젤라 고의 작품은 그만의 독특한 예술적 실천을 통해 고유한 세계를 펼쳐 낸다.

Total is a solo that has more to do with dancing in the third person than speaking in the first.

On the one hand, gestures catch a ride on the body, on the other hand, the body rides the gestures. Temporal drag, kicking up dust, making a smokescreen. The closer the dance gets to the body, the further the body gets out of view.

On the one hand, it waves to you.

On the other hand, you look back.

On the other, the hand is another.

The Australian choreographer Angela Goh's new solo continues her investigation between the too obvious and the really weird, emerging from the uncanny valley, touching pattern recognition, diving into the unsettling depths of the body, the sticky fluidity of appearance, disappearing into webs of unresolved twilight, where details shape-shift, the monstrous turn into a cuddle and the enormous is captured in a gaze. Goh's work unfolds a world of its own through a highly unique artistic practice.

함께하고 만들

안젤라 고

지원

크리에이트 뉴사우스웨일즈,
레디메이드 워크스,
크리티컬 패스

공동제작

옴/신 페스티벌,
리움 아이디어 뮤지엄

안젤라 고는 체현된 공간과 재현의 정치학 사이의 역학을 다루는 호주의 무용수이자 안무가다. 그는 표면과 깊이, 유기성과 기술, 개인과 인공을 다루며 몸과 제도적 공간의 사이에 모호한 관계를 만들어 내고, 가시성, 행위자성, 목소리 간의 구조적인 권력 관계를 드러낸다.

그의 작품은 하우스 데어 쿤스트, 아스트로플러니 미술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퍼포먼스 스페이스 뉴욕, 타이베이 공연예술센터 등 국제적인 무대에서 소개되었다. 2020년 키어 안무상을, 2023년 그린룸 어워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2019년 NSW 공연예술

펠로십을, 2020-21년 첫 시드니 댄스 컴퍼니 펠로십을 받았다. 2024년에는 제11회 아시아퍼시픽 컨템포러리 아트 트리엔날레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호주 시드니의 가디칼 랜드에 거주하고 작업하고 있다.

리움미술관

11.22 금 19:00 / 11.23 토 19:00

무료 / 25분 / 무용

Leeum Museum of Art

11.22 Fri 19:00 / 11.23 Sat 19:00

Free / 25 min / dance



Courtesy of the artist

With and by
Angela Goh
Made possible
with support from
Create New South Wales,
ReadyMade Works,
Critical Path
Co-produced by
Ob/scene Festival,
Idea Museum (Leeum)

Angela Goh is an Australian dancer and choreographer interested in the dynamics between embodied space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Creating oblique relations between bodies and institutional spaces structural power relations regarding visibility, agency and voice are made tangible, playing with surfaces and depth, organicity and

technology, personal and artificial.

Her work has been presente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in Haus der Kunst, Astrup Fearnley Museet, Sydney Opera House, Performance Space New York and Taipei Performing Arts Center. She was awarded the Keir Choreographic Award in 2020, a Green Room Award

for Most Outstanding Creation in 2023, the Create NSW Performing Arts Fellowship in 2019, and the inaugural Sydney Dance Company Fellowship in 2020-21. In 2024 she will present her work in the 11th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Angela lives and works on Gadigal Land in Sydney, Australia.

『옴.신 10』 출판 기념회

Ob.scene 10 Book Launch

제10호 『옴.신』은 주체성이나 인간성을 우회하거나 건너뛰거나 오염시키거나 간섭할 수 있는 경험과 감각의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경험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경험은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나는 사건이나 네거티브의 형태여야 하는가?

주체는 개인으로 하여금 인상을 매개하고, 실제적, 현상적, 상상적 세계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주체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통치와 권력의 역학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주체에 대한 참여는 결코 순수할 수 없으며, 언제나 노동, 가족 구조, 성별, 인종 등과 상관관계를 맺는다. 매개 없이 경험할 가능성은 주체의 정치학을 무력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주체를 형성할 필요성을 불러온다.

예술, 특히 미적 조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 중 그러한 감각의 형태가 출현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영역 중 하나다. 이러한 감각은 위협적인 삶의 편안한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폭력적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겨난 균열은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기 에 황홀하다.

마텐 스팅베르크가 게스트로 기획한 이번 호 『옴.신』은 이론적 탐구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의 작품을 통해 한 개인을 형성하는 규제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방식을 질문하는 예술가들의 글과 도록을 실는다.

축제 중 기획자와 기고자들이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출판물을 만나볼 수 있다.

The tenth issue of *Ob.scene* takes as its starting point the possibility of experiences and sensations that bypass, circumvent, corrupt or otherwise intercept subjectivity, or personhood. Can we imagine or must such experiences be forms of accidents or negatives that show up rather than being wilfully constructed?

It is through the subject that a person mediates impressions and offers us to navigate the world, actual, phenomenal and imaginary. Simultaneously the subject is nothing natural but constructed through processes of governmentality and power dynamics, and those engagements are never innocent but correlated to labor, family constellations, gender, race etc. The possibility of experiences without mediation carries the agency of rendering politics of the subject obsolete, thus necessitating the formation of other modes of subject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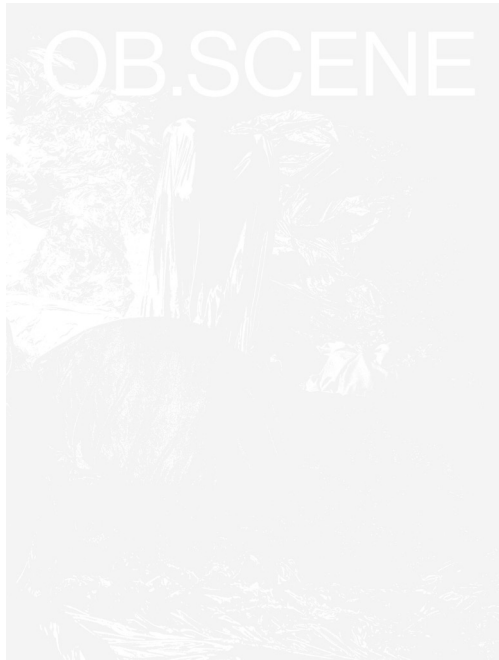
Art and in particular aesthetic encounter are one of very few domains of human experience that harbors the power of the emergence of those forms of sensations, sensations that are violent because they disrupt the comfortable flow of entangled life and at the same time blissful because the interval created is another name for freedom.

Guest edited by Mårten Spångberg, the volume presents a remix of theoretical inquiries, artists' writing and a catalog of artists who in their work, in different ways, address the regulatory and human-centric formation of personhood.

Come and get your copy of the publication next to a conversation between the editor and some of the contributors.

아케이드서울
11.19 화 20:30

Arcade Seoul
11.19 Tue 20:30



『옵.신』은 잡지 형식을 개념적 매개 삼아 제안하는 실험이다. 2011년 서현석과 김성희가 창간했다. 전시장과 무대, 주방을 전유하고 그렇게 기능할 잠재성의 공간으로서 잡지. 극장을 출판물로, 춤을 지면에서 벌어지는 무언가 또는 목적지 없는 혼종으로 변형하는 잡지. 어쩌면 심지어 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출판물인 전시 또는 퍼포먼스일지도 모르는 잡지. 다시 말해, 확장된 장의 잡지, 진정 불안정하게 달려드는 기회.

Ob.scene was founded in 2011 by Seo Hyunsuk and Kim Seonghee, as an experimental proposal through which the format magazine became a conceptual carrier. Magazine thus as a space of potentiality that can appropriate and function as an exhibition space, stage, kitchen and equally turn theatre into a publication, a dance something

taking place on paper or some form of hybrid without destination. Perhaps, even a magazine that is an exhibition or a performance that looks like a dance but is a publication. In other words, magazines in the expanded field, and an opportunity to engage with the properly unsettling.

예술감독

마텐 스팅베르크

매니징 디렉터

조화연

책임 프로듀서

구예나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편지지

홍보마케팅 매니저

김지후

코디네이터

송소연

우희서

그래픽 디자인

슬기와 민

웹사이트 제작·디자인

민구홍 매뉴팩처링

서브 디자인

김국한

번역

김신우

아티스트 토크 통역

김서지

기록물 촬영

이강선

기술감독

박기남

무대감독

김유정

음향감독

김성욱

인턴

구아경

김선교

김연수

남하늘

남해든

성무현

이서진

조유진

홍나연

주최/주관

옵/신

협력 기관

리움미술관

후원

스웨덴 인스티튜트

Artistic director

Mårten Spångberg

Managing director

Cho Hwayeon

Head of production

Ku Yena

Assistant of

production director

Pyun Jiji

PR & marketing manager

Kim Jihoo

Coordinators

Song Soyeon

Woo Heeseo

Graphic design

Sulki and Min

Website design and

development

Min Guhong Manufacturing

Sub design

Kim Gukhan

Translation

Kim Shinu

Interpretation for

artist talks

Kim Seoji

Documentation

Lee Kangsun

Technical director

Park Kinam

Stage manager

Kim Youjung

Head of sound

Kim Sungwook

Interns

Gu Ahkyung

Kim Seonkyo

Kim Yeonsoo

Nam Haneul

Nam Haedeun

Seong Muhyeon

Lee Seojin

Cho Yujin

Hong Nayeon

Organized by

Ob/scene

In cooperation with

Leeum Museum of Art

Sponsored by

The Swedish Institute